

# 다시 한 번: 고린도에서의 머리, 베일, 머리카락<sup>1</sup>

Hans-Jörg Ronsdorf · 2021년 1월 · 2026년 10월 개정

해마다, 그러나 점점 줄어들면서, 쉽지 않기로 잘 알려진 이 바울 본문(고린도전서 11:2-16)에 관한 글들이 발표됩니다. 저는 왜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일까요? 2020년 11월에 출간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한 제 책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sup>2</sup>에서 저는 한 장을 할애해 이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니 마땅히 그래야 했던 것만큼 체계적이고 자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토마스 쉬르마허(Thomas Schirrmacher)가 그의 책 Paulus im Kampf gegen den Schleier!(“베일과 싸우는 바울!”)에서 전개한 인용 가설을 아주 강하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용 가설도 하나의 가정이며, 충분히 그럴듯하지만 결국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한 여성 신학자와 한 남성 신학자의 연구에 힘입어, 인용 가설 없이도 설득력 있는 설명에 이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낯선 문화적 상황, 곧 1세기 그리스-로마 문화 속으로 말합니다. 아무 곳이 아니라 고린도, 당시 그리스에 있던 로마의 식민 도시입니다. 바울에게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18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행 18:1-18).

이 글에서 저는 비교적 새로 나온 두 권의 책을 자주 인용하겠습니다. 이 책들은 이 어려운 본문을 더 잘, 새롭게, 혹은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부분에서는 그들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없었기에, 주로 두 저자가 직접 말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에크하르트 J. 슈나벨(Eckhard J. Schnabel)의 (기념비적이고 탁월한) 주석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바울의 고린도전서”, 총서 Historisch-Theologische Auslegung)입니다(슈나벨은 보수적이고 “성경에 충실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교수입니다<sup>3</sup>). 이 본문을 이처럼 탄탄하게, 이처럼 많은 출처를 제시하며 철저히 다룬 주석을 저는 달리 알지 못합니다. 그의 결론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제에서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 책의 제목은 Paul and Gender<sup>4</sup>입니다. 신시아 롱 웨스트폴(Cynthia Long Westfall,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은 2016년에 이 본문과 성별 문제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중요한 바울 본문을 다룬 연구를 내놓았고, 이 연구는 영어권에서 널리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문화적 상황을 깊이 고려하면서, 수많은 해석자들과 평범한 성경 독자들이 씨름하는 큰 질문들에 새로운 빛을 비춥니다. 두 저자는 많은 견해에서 일치합니다. (웨스트폴의 인용은 각주에 꼭수만 적습니다.)

제 목표는 바울의 논증이 무엇이며,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바로 이렇게 쓰게 했는지를 (저 자신을 위해) 밝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남자들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분명히 밝혀진다 하더라도 – 여기서 그것을 보장할 수는 없고, 각 독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하지만 –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21세기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흔히 근시안적으로, 지나친 열심으로 주장되듯 성경에 충실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른바 성경에 대한 충실함을 정말 진지하게 여긴다면, 성경 연구의 수고를 (거듭거듭) 감당하고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경건해 보이기만 하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빈말로 남습니다. 혹은 경계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경계를 긋거나, 숙고나 절제가 필요한 곳에서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쉽볼렛이 되고 맙니다.

## 상황화(Kontextualisierung)

상황화는 먼저 성경을 그 배경 속에서 연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다음에야 이 본문이 오늘 무엇을 말하는지 탐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이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금령처럼 직접적인 계명은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계명을 시대를 초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관습과 관행(우상 제물 고기 등)에 관한 것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의 고린도와 로마 제국 전체에 있던 그 시대의 관습과 풍습을 언급합니다. 어떤 해석자도, 어떤 성경 독자도 당시 문화와의 이러한 관련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해석자가 바로 그렇게 합니다. 다만 역사적 사실과 그 해석에 대한 지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본문 해석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저처럼 형제운동 출신인 모든 분께: 다비(Darby)와 켈리(Kelly)도 베일과 머리카락이라는 주제를 오로지 본문 안에서만 설명하지 않고, 당시 문화도 참고했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문화적 주제이지 성경적·신학적 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문화적 관습을 창조 기사에 비추어 평가하고 심지어 근거를 대기까지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했던 이 질문(들)에 답합니다.

바울은 그의 논증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규범, 곧 수 세기를 넘어, 아니 창조 때부터 초월적으로 적용되는 영원한 행동 규범을 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사람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논증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명령되었거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바로 이 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렇게 표현한 황금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31-33: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황금률”은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논증을 통해 전하려는 규칙들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그 시대에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문화적 의미에서 수치로 여겨진 외적인 것이나 행동 때문에 동시대 사람들과 이웃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을 결합한 것입니다.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차피 이런 관습 속에서 자랐고, 그 길을 통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얻을 수 있다면 그 관습을 지키거나 견디는 것은 지나치게 큰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로마 문화의 외적인 것들을 지키라고 권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측면을 고려하는 길을 찾으려 합니다. 한편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 사건을 숙고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사회)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고려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여기서 미리 10절을 짚어 두겠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대부분의 번역과는 달리 –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룹니다) 여자가 자기 머리에 대한 권세, 곧 머리를 가릴지 말지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그녀는 위에서 말한 기준과, 앞으로 이야기할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본문의 적용 범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는 권고는 어떤 영역에 해당합니까?

**그것은 함께 모이는 자리입니다!** 기도와 예언은 어디서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특히 14장을 보십시오) 모임의 주된 내용입니다. 어떤 장소와 어떤 계기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서신의 문맥에서 밝혀져야 합니다.

예배에서 여자들에게 침묵을 명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바울의 진술을 예배만 빼고 모든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머리를 가리는 것은 공적인 자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보여야 하거나 보일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12-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가 성별에 따른 어떤 제한도 없이 온전히 나누어지며, 모임에서 **모두가** 참여한다는 점이 여러 번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는 명령(고전 14:34-35)은 이것과 모순될 수 없으며, 11-14장에 비추어, 결국 서신 전체의 문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가정 교회에서 방해가 되는 여자들의 말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영적인 나눔을 방해하거나 끼어들어 산만하게 하는 말, 혹은 아내가 모임에서 남편의 체면을 깎을 때, 오늘날 말로 “망신을 줄” 때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말일 것입니다. 어쨌든 해석학의 기본 원칙을 지킨다면 그것은 전면적인 발언 금지일 수 없습니다. 이 구절들을 떼어 내어, 마치 완전히 따로 서 있는 것처럼 볼 때에만 그렇게 됩니다.

## 바울은 여성을 적대한 사람인가?

이 본문이 **역사비평의 안경**을 통해 어떻게 보이는지는 다음 인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교회와 교회의 영향을 받은 사회에서 여성 억압에 기여했다. 아무리 호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이 본문은 21세기에 성별 관계에 대해 기독교 신학이 말해야 할 바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성별 관계에서의 평등과 정의, 그리고 이성애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바울은 알지 못했다. 이런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아직도 영감을 줄 수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 본문은 정의를 해쳤고, 본래 자기 시대에 땅 위의 정의를 위해 일했던 한 사람의 실수였기에, 오늘의 관점에서는 거부될 수밖에 없는가?”<sup>5</sup> 이 견해는 이 본문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인식을 대변하며, 저는 그것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 대해 부정적·비판적 태도를 취하면 이런 견해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 곧 **성경에 충실하다는 쪽**에서는 이런 종류의 비판을 격렬하게 거부하며 이렇게 단언합니다. 평등이나 동등한 권리가 아니라 위계적 복종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이 젠더 철학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서는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극단적인 입장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까? 두 입장을 섞지 않으면서 이 본문을 설명하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둘을 섞는 것은 제게는 그릇된 타협일 것입니다.

두 설명 가운데 어느 쪽에도 넘어가지 않고 바울을 기준으로 삼는 읽기가 있습니다. 그의 13개 서신과 사도행전, 그리고 물론 바울이 본으로 삼았던 예수를 기준으로 삼는 읽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전 11:1)**.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발언이 들어설 자리를 조금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바울은 여성의 벗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광채 속에서 진리를 알게 되었고 보았습니다. 그의 유대-헬레니즘적 여성관도 복음의 빛 속에서 개혁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복음에 충실한 것도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출신과 배경에 따라 종교 제의에서 흔한 관습이었습니다. 신자들의 모임에서는 남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바울에 따르면,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할 때 머리를 가려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여자, 곧 당시 사회에서 머리를 가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여자들, 즉 여종과 해방된 여자, 혹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둘 다 부분적으로는 반문화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문화가 복음의 핵심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르민 바움(Armin Baum)과 슈나벨의 견해와 달리) 모든 여자가 길에서, 곧 공적 생활에서 머리를 가려야 한다는 지시도 아닙니다. 문화가 최하층인 여종들에게는 그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거나 베일을 쓰는 것은 여차피 관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남자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머리를 가리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복종, 여자의 낮은 지위와 가치는 여차피 오래전부터 돌에 새겨진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드러내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가림에는 구체적인 기능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기능적인 표시였지, 위계적인 상징은 거의 혹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 바울은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바로잡혀야 합니까?

거의 모든 해석자는, 새로 얻은 자유를 근거로 당시 흔하던 머리 덮개를 계속 쓰기를 거부한 여자들이 이 말씀의 대상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머리 덮개는 다시 남자에 대한 복종의 표현이자 그 인정이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분명히 창조로부터 이끌어 내듯이,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에게, 아내는 특별히 남편에게 위계적으로 복종하거나 그 아래 서열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위계”라는 말이 거슬려 차라리 창조 질서나 거룩한 질서(들)라고 말하고 싶다면, 한 가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가치와 같은 존엄을 지녔다고 하면서도, 결국 불평등을 하나님의 질서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이끌고 책임지며, 여자는 복종하며 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성들의 해방적 행동이 이 바울 본문을 촉발했다면, 왜 이 본문이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말로 시작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 시작은 주의를 남자들에게로 돌립니다. 그것도 마치 그들이 뒤따르는 논증의 계기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신시아 롱 웨스트폴은, 고린도에 여자들에게 관습적인 머리 덮개를 벗으라고 권하거나 압박한 남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존경받는 신분의 결혼한 여자들은 자신의 머리 덮개를 벗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라 온 문화의 관습에 어긋났습니다. 그들의 머리 덮개는 보호였고, 품위와 단정함과 도덕적 순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종의 상징이 아니라, 아내로서 남편에게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여종과 해방된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여자(그리고 어쩌면 과부도?)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최하층으로서 성적인 접근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매춘부들은 머리를 가리거나 베일을 쓰지 않았고,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어떤 형태였던 짧은 머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여자들이 믿음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서신 첫머리(1:26-29)에서, 믿음에 이른 사람들 가운데 높거나 고귀한 신분이 아닌,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자들에게는, 사회의 관습과는 반대로 그들도 머리를 가릴 수 있다고 말해 주어야 했습니다. 새 언약과 새 창조의 교회에서는 신분이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도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상황의 여러 측면

이 질문을 추적하면서 역사학자들의 자료에 의존할 때마다, 바울이 자기 시대와 사회를 어떻게 보았는지 유념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서 각 시대의 문화가 복음과 모순될 때에는 그것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로 12:2). 복음 안에서 “맞추어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되는 것(고전 9:20-22 참조)은 우상의 신전에서 식탁에 기대어 앉아 우상 제물 고기를 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덧붙여 말하면, 세상의 흐름에 대한 바울의 판단은 – 한 시대의 관습과 풍습과는 달리 – 시대를 초월하며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 글의 주제는 성별 문제와, 그에 따르는 행동과 겉모습입니다.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올바른’ 행동을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당국의 주된 관심사였다. 가정의 무질서가 제국의 안녕에 반란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6</sup>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성공하려면,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행동이 1세기 그리스·로마 세계 일반의 여성들이 행하던 것과 일치해야 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교회와 가정에서의 성 역할을 다룰 때, 성별에 관한 그의 관심사는 흔히 선교적인 것이었으며, 그의 의도는 신자들이 문화에 녹아들면서 동시에 윤리적으로 순결하게 남는 것이었다. 1세기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21세기 문화에 적응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다. 남녀가 보통 어떻게 행동하고 서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현대 서구의 생각은 그리스·로마 문화의 생각과 뚜렷이 다르다.”<sup>7</sup>

“문화의 기본 구성 요소인 후견인-피후견인 관계와 상호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형성한다.”<sup>8</sup> 여기서 후견인(Patron)이란, 지위나 신분이 더 높은 후원자나 지원자를 가리킵니다. 그 높은 지위가 오직 재산이나 부 때문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대개 후견 제도/관계에서 동등하지 않은 상대였다. 남편은 은인의 역할을 했고, 아내는 혼인 관계에서 종속된 편이었다. 그녀가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다면 말이다.”<sup>9</sup>

“(고린도는) 남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성적 활동을 제공하는 곳이었다(그래서 ‘고린도 여자처럼 행동한다’는 말은 성적 부도덕에 빠진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고린도 소녀’라는 말은 매춘부를 가리키는 완곡어였다. 상류층은 없었고, 대신 고린도의 부가 벼락부자 계층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구성원을 부유한 엘리트에게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주로 지위나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얻었다고 지적한다(고전 1:26).”<sup>10</sup>

이처럼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아무런 기독교적 사회화 없이 믿음에 이르고 신자들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그들은 여전히 평생 몸에 밴 악습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성적인 것은 공기 중에 떠다녔고, 어디서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주제와 행동 방식에 맞닥뜨려 있었습니다.

## 함께 모이는 실제 모습

하나님께서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 불러내신 많은 백성(행 18:10)은 한곳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극장이나 경기장을 빌렸다면 몰라도, 주로 평범한 사람들이 믿는 새로운 종교로서는 그것은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크고 작은 집에서, 몇 안 되는 저택에서, 대부분은 소박한 집이나 공동 주택에서 모였습니다(에베소에서는 오늘날에도 그런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일 때 음식을 준비한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일부는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함께 나누는 식사的一部分였습니다.

가정 교회의 남자와 여자들에게는 바울이 표현한 내용이 적용되었습니다. 웨스트폴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교회에서의 역할의 구별이 아니라, 그 역할 안에서 그들이 서로 다르게 기능하는 방식이다. 여자와 남자는 같은 직분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성별에 따른 걸모습을 포함하는 서로 다른 요구 사항이 있다. 이것은 남자에게는 아무 제한이 없고 여자만 제한받는 이중 잣대의 표현이 아니다. 둘 다 제한을 받는다.”<sup>11</sup>

“끝으로 한 가지 점을 다시 짚어 두고자 한다. 그것은 바울 논증의 진술 의도에 속하지는 않지만 중요하다. 바울은 여자들이 교회 모임에서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말한다. 곧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실재와 그분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말로 전한다는 뜻이다.”<sup>12</sup>

## 무엇이 공적인가?

공적 영역이란 보통 누구든지 만나게 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고린도의 시장, 항구, 혹은 우상의 신전 같은 곳입니다. 결국 자기 집 밖의 모든 것이 공적인 영역입니다.

예배 모임은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집에서 열렸고, 덜 부유한 사람들의 집과 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렸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것이었습니까? 시장의 상황과 견줄 수는 없었지만,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리로 인도하셨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모이는 자리도 닫힌 모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임에서 풍습과 관습을 지키는 것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똑같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분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임재에 의해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고전 14:16, 23-25).

여러 해석자가 이것이 모임 밖에서의 복장 규정까지 뜻하는지 묻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것은 이 본문의 주제도 아니고 고린도 사람들의 질문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무에게도 걸림이 되지 말라는 고린도전서 10:31-33의 황금률이 적용됩니다. 결혼한 여자들은 집을 나설 때 머리를 가립니다. 여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바울이 쓴 대로 예배에서는 가립니다.

## 고린도에서 머리를 가리는 관습

이에 대해 몇 가지 인용과 좀 더 자세한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머리를 가리고 베일을 쓰는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이 바울 본문을 오늘날에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그것도 일차원적인 흑백 해석학으로 그렇게 하며, 그것은 결국 편협한 율법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자주 마주쳤고 직접 겪기도 했습니다.

“미셸 아워백(Michelle Auerback)은 베일 착용에 대한 논증을 이렇게 요약한다. **‘상징과 진술은 그 의미를 아는 문화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서학에서 대부분의 학자는 고린도전서 11:3-16에서 베일 착용이 ‘복종’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고대 동지중해 문화에서 베일 착용이 여성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이해하려고 씩씩하지도 않은 채** 말이다. 또한 여러 현대 문화에서 여전히 널리 행해지는 베일 착용의 의미도 살펴보지 않았다.”<sup>13</sup>

“브루스 윈터(Bruce Winter)는 로마 제국 시대에 ‘베일로 가린 머리가 결혼한 여자에게 기대되는 정숙함과 순결의 상징이었다고 확실히 전제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sup>14</sup>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성의 베일 착용을 실천하는 문화들에서 나온 여성들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이야기는 다른 것을 들려준다. 우리는 이슬람과 유대교 안에, 고린도전서 11:3-16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와 매우 비슷하게 들리는 이유로 베일을 쓰는 경건한 근본주의 여성들의 강한 흐름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착오에 빠질 위험이 있는 후대의 인류학적 유사 사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베일 벗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의 역사와 베일을 쓰는 이유는 아시리아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할 수 있다.**”<sup>15</sup>

“바울의 관심은 교회에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모든 여성 – 여종, 해방된 여자, 미혼 여성, 과부를 포함하여 – **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의 마르코나<sup>16</sup>의 복장 규정은 그녀의 신분뿐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성적으로 성숙한 여성으로서의 지위와 역할’도 드러냈다. **반면에 베일을 쓰지 않은 머리는 성적으로 접근 가능함을 뜻했고, 그래서 여종이나 해방된 여자에게는 베일 착용이 금지되었다.**”<sup>17</sup>

“베일 착용을 규정하는 것은 남자들의 특권이였다. 지침을 정할 필요를 가장 당연하게 느낄 사람도 그들이었을 것이다. 로마의 관행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기도할 때 머리를 가렸다. 바울은 교회의 남자들에게 로마의 관행과는 반대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으로 보이며(고린도전서 11:4), 그래서 남자들은 ‘수거워에게 좋은 것은 암거워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남자의 가리지 않은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시였지만, 여자의 가리지 않은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겸손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성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것은 유혹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화적 이상은 신학적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것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포기될 수도 있었다.”<sup>18</sup>

“바울이 고린도의 여자들을 바로잡았다는 것은 대개 의심 없이 전제된다. **그러나 고린도의 여자들이 머리 덮개나 베일을 벗기를 거부했다고 가정하면 이 단락은 더 잘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권위를 가진 사람들, 곧 가정 교회의 남자들, 어쩌면 그들 자신의 남편들까지 그들에게 베일을 벗으라고 압박하거나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베일을 쓰는 문화들에서 되풀이하여 벌어지는 종류의 시나리오다.”<sup>19</sup>

베일 착용은 사회적 차이, 곧 신분의 위아래를 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는 1800년 동안 근대에 이르기까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여자들이 성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신호였을 뿐 아니라, 사회 질서와 계층 간의 구별을 유지하는 기능도 했다. [...] **모든 여자의 베일 착용을 지지한 바울의 태도는 교회 안의 사회적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었다. 그 베일 착용이 그의 손에 달려 있는 한, 그는 문화 속에서 그런 지위를 거부당했던 교회의 여자들에게 존중과 명예와 성적 순결을 보장해 주었다.**”<sup>20</sup>

“근동 문화에서 상류층 여자는 자신의 헌신과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 머리를 가렸다. 그녀의 가린 머리는 또한 그녀 자신의 명예와 그녀 가문의 명예를, 특히 그녀 정체성의 근원인 paterfamilias(고대 가정의 가장)의 명예를 직접 드러냈다. 바울은 이 상징의 복합적인 의미를 끌어와, 창조 기사를 근거로 베일 착용을 위한 신학적 논증을 제시한다.”<sup>21</sup>

에크하르트 J. 슈나벨(Eckhard J. Schnabel)은 이렇게 씁니다. “여자들이 (종교적 맥락에서만만 아니라) 머리 덮개를 쓰는 것은 로마-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졌다. 로마의 조각상들, 특히 황실 여성들의 초상과 묘비 부조는 결혼한 여자들을 머리 위로 끌어올린 스톨라(palla)나 양털로 된 머리띠 vitta를 한 모습으로 묘사하는데, 이것들은 정숙함과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스톨라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톨라를 착용하는 것은 그들의 순결을 상징했다. 아우구스투스의 혼인 입법은 매춘부들이 정숙한 아내, 곧 마트로나의 스톨라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sup>22</sup> 아르민 바움(Armin Baum)은 머리 덮개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 **Was bedeutete die weibliche Kopfbedeckung in der Antike?**

Um den kulturellen Hintergrund von 1. Korinther 11,5-6 zu verstehen, muss man mindestens bis ins zweite Jahrtausend vor Christus zurückgehen. In den mittelassyrischen Gesetzen aus der Regierungszeit des assyrischen Königs Tiglatpileser I. (1115-1076 v. Chr.) heißt es: „Wenn ein Bürger seine Eingeschlossene (d. h. seine Konkubine, mit der er nicht verheiratet ist) verhüllen will, so soll er fünf oder sechs seiner Genossen Platz nehmen lassen, sie in ihrer Gegenwart verhüllen und sagen: ‚Sie ist meine Gattin‘. Dann ist sie (tatsächlich) seine Gattin.“ Bei der Eheschließung wurde der Kopf der Ehefrau demnach mit einem Tuch bedeckt. Das bedeckte Haupt war das sichtbare Kennzeichen der Ehefrau.

Diese Sitte hat sich über Jahrhunderte erhalten. Sie war auch in neutestamentlicher Zeit sehr verbreitet, als Paulus seinen ersten Korintherbrief schrieb. Letztlich ist die antike Verhüllung der Ehefrau sogar ein Vorläufer unseres modernen Brautschleiers, den die Braut bei der kirchlichen Trauung trägt. Seit Jahrtausenden kommen Frauen bei der Eheschließung im wahrsten Sinne des Wortes „unter die Haube“. Die Kopfbedeckung symbolisiert in ihren zahllosen Spielarten immer dasselbe, nämlich den neuen Status der Ehefrau.

유대교에서 머리 덮개를 벗는 것은 혼인의 정절이 의심받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간음한 여자에게서는 머리 덮개를 강제로 벗기기까지 했습니다. 스스로 머리 덮개를 쓰지 않는 것은 남자들에게 자신을 내어 줄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자들은 어디서 머리 덮개를 써야 했습니까? 예배에서 소리 내어 참여할 때, 곧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말하는 사람에게 쏠릴 때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었고 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배에서 언제나 머리를 가리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예배에서 목소리를 낼 때에만 머리를 가렸습니다.

“이 연구는 베일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상징했다는 성서학계의 지배적인 전제를 반박한다. 베일 착용은 사적인 상징이 아니라 법과 관습으로 규정된 공적인 관행이었고, 남자와 여자 모두 그 관습에 따를 것이 기대되었다. **요컨대 베일은 여자의 명예와 지위와 보호를 나타냈다.**”<sup>23</sup>

“여자들이 명예와 보호를 상징하는 베일을 벗기를 거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지금도 그렇다). 공적인 자리에서 베일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여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모임에서 베일을 쓰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모든 여자에게 베일을 쓰라는 바울의 지시는 반문화적, 또는 문화를 거스르는 것이었으며 여자들에게 호의적인 것이었다. 모든 여자가 베일을 쓰는 관행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의 사회적 관계를 고르게 했다.”<sup>24</sup>

**로마인들이 종교 행위를 할 때 남자들이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잘 입증되어 있으며, 그리스인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고찰과 주석에서 남자들의 머리 덮개에는 훨씬 적은 관심이 기울여진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고린도에서 신전 제사를 드리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조각상은 이 통치자가 머리를 베일로 가린 모습을 보여 줍니다. 리처드 오스터(Richard Oster)는 그리스 남자들이 이방 신들에게 종교적 제사를 드릴 때 흔히 머리를 가렸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방 우상 숭배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전에 행하던 관행을 두고 말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3세기에 키프리아누스(Cyprian)도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자들의 사로잡힌 머리가 그곳에서 덮였던, 그 불경하고 악한 베일로부터 여러분의 머리는 자유로웠습니다’(De lapsis 2). 브라이언 로즈너(Brian Rosner)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6:12-20에서 거룩한 행사 중에 성행위를 한 남자들을 염려했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줍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의 머리 덮개에 대한 바울의 염려는 신전 매춘부들과의 성행위에 대한 책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이 주제를 더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상황을 여자와 대조하기 위해서만 사용했음을 시사합니다.

## 본문 해석을 위한 지침과 관점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이 바울 본문을 처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본문에 새롭게 다가가는 길을 열어 줄 수도 있는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관점들은 이 본문과 관련 연구를 거듭 붙들고 씨름한 결과이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관점들은 본문을 여자(들)의 위계적 복종이라는 안경을 통해 이해하는 익숙한 읽기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듯이, 그것은 이 본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 본문이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은, 모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가입니다.
- 남자와 여자가 주의를 자신에게 끌지 않도록 행동하고 옷을 입음으로써,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 (몇몇)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벗으라고 요구함으로써 바울의 가르침의 원인이자 계기가 되었습니다.<sup>25</sup>
- 문화적·사회적 관습과 풍습을 다룹니다. 수치와 불명예는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느끼는 감정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바울이 창조 기사를 논증에 끌어오기는 하지만, 그의 시대를 초월하는 계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 것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 문제는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며, 전신을 가리는 베일도 아닙니다.
- 남자가 여자 위에 서는 위계적 창조 질서는 어디에서도 주제가 아닙니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복종도 어디에서도 주제가 아닙니다. 둘 다 같은 서열에서, 같은 지위로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 바울은 결국 결혼한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창조에 근거를 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좀 더 일반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관계는 여자가 여종이어서 형식상 그녀의 머리가 되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도 적용됩니다.
- 옷이나 머리 모양 같은 외적인 것은 복음이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의 제의에서는 본질적이었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서 기념한 새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것은 21세기 남자와 여자의 행동 규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이 단락의 각 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고린도전서 11:3-16<sup>26</sup>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리스도는 각 남자의 머리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바울은 결국 머리 덮개라는 주제를 말하기 위해 세 쌍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그다음 그리스도, 그 아래 남자, 맨 끝에 여자로 이어지는 단계나 서열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 계통이 아닙니다. 맨 끝에 서 있는 것은 여자가 아니라,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십니다(12절). 세 쌍은 유비로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구원의 질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에 대한 남자(또는 그녀의 남편)의 관계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sup>27</sup>



독일어에서 **머리**(Haupt)라는 단어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면 곧바로 권위 있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예컨대 Hauptmann(대장, 지휘관)이라는 말에서처럼 말입니다. 거의 모든 해석자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떤 번역들은 머리라는 단어조차 쓰지 않고 곧바로 복종의 의미로 옮깁니다. 독일어 성경 번역본 NeÜ는 아예 **Oberhaupt**(우두머리)라는 단어를 써서, 바울이 여자들의 머리 덮개를 정당화하기 위해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의심도 남기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는 고린도전서 11:3-16의 주제가 남자의 권위와 여자의 복종이라고 전제해 왔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라틴어, 영어, 독일어에서 '머리'가 권위의 은유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이 단락의 해석사에서 '권위'라는 의미가 자명한 것처럼 보였다."<sup>28</sup>

**이 본문 전체가 권위와 복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전혀 아니므로, 머리의 은유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 문제를 두고 위계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평등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은 머리를 근원과 기원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을 지지합니다(8절, 12절).**

"웨스트폴(Westfall)은, 문맥 속에서 창세기 1-2장에 대한 암시들이 헬라어에서 '머리'가 가질 수 있는 은유적 의미의 다양성과 폭을 제한하여 생명의 근원을 가리키게 한다고 논증한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모든 남자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오고, 여자의 생명이 남자에게서 오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sup>29</sup> ... "남자가 여자의 생명의 기원이므로, 그는 그녀의 머리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고 그들이 한 몸이라면, 바울은 여자가 그의 몸이라고 결론짓는다. 바울은 '머리'라는 은유를 혼인에,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에 적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는 이 관계들을 서로 비추어 해석하기 위해 '머리'를 사용한다."<sup>30</sup>

"κεφαλή(머리)의 의미 범위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가 포함되며, 이것이 정체성, 근원, 생명, 공급을 담는 은유로 확장되었다. 관용적인 헬라어(언어 관습)에서 그것은 '권위'를 뜻하지 않았다. 이것은 Liddell and Scott's Greek-English Lexicon의 항목에서 분명히 드러난다."<sup>31</sup> ... "따라서 바울은 κεφαλή를 이렇게 사용한다. **가족 관계의 맥락에서 생명과 정체성의 기원 또는 근원을 가리키기 위해서다** – 남편과 아내,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그렇다."<sup>32</sup>

"인류와 아담의 관계를 신학자들은 **'머리됨'**, '자연적 머리' 또는 '언약의 머리'라고 부른다." ... "아담은 생물학적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류의 머리다. 그렇다고 아담에게 인류 앞에서나 인류 위에서 우월한 지위나 명예나 권위나 숭배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기원에서 비롯되는 정체성에 근거한 관계이며,** 바울은 이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예수께서 아담을 대신하여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께서 교회를 채우시는 영적이고 생명을 주는 근원이시며, 교회는 그분과 유기적 일치를 이루기 때문이다(엡 1:22; 4:15-16; 골 1:18).**"<sup>33</sup>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그들의 생명/존재의 근원으로 이해한다면, 세 쌍 사이의 유비는 평행을 이루며, 그것을 탐구하는 것은 바울 신학을 이해하는 데 풍성하게 기여한다." ...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아담의 자연적/생물학적 머리됨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일관되게 해석될 수 있다. **그것은 가족 관계다.**"<sup>34</sup> ... "**그리스 문화에서 시조의 머리됨이라는 개념은 가족을 대표하고 가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했다.**"<sup>35</sup>

"끝으로, '머리'의 세 가지 연상 가운데 마지막 것은 이 단어가 동의어로 쓰이는 데 중요하다. 앤서니 티슬턴(Anthony Thiselton)은 해부학적 머리가 몸 전체를 대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한다. 누군가 자신의 육체적 머리를 욕되게 하면, 그 사람 전체가 더럽혀졌다. 바울은 한 사람의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므로 '머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은 위계적 지위를 표시하거나 성별 사이에 차이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성적 의식에 깊이 얽혀 있던 이방 종교와의 연관을 피하도록 고린도의 예배 행위를 바꾸기 위한 시적 기법이었다.”

당시 용법에서 은유적 의미에는 어느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머리는 일치, 정체성, 기원을 나타내기도 하고, 한 사람의 가장 높은 명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종합하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머리에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같은 서열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에 따라 외적인 행동이 서로 다릅니다. 역할이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오히려 역할이 똑같습니다. 둘 다 기도하고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겉모습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당시 문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문화적 사정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것을 창조 사상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4 무엇을 머리에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남자는 누구든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기도와 예언, 곧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배 모임의 구성 요소입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간구와 경배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에서도, 그리고 모인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 곧 남자와 여자가 모두 이 두 가지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자들은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 위에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확언이며, 그 시대의 (종교) 문화와 관련짓지 않고는 해명할 수 없는 진술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여러 해 동안 그 근거를 바로 앞뒤 문맥에서, 그다음 서신 전체에서, 그다음 신약 전체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고 설득력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종교 행위를 할 때 머리를 가렸지만, 그리스인들은 대개 그러지 않았습니다(키너(Keener)). 이제 예수를 고백하는 남자들은 고린도와 다른 곳의 우상 숭배 제의에서 행해지던 관행과 행동 방식에서 거리를 둡니다.

“(남자는) 부끄럽게 행동한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위신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보면, 이 진술은 사회에서 상류층에 속하면서 기도할 때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듯 드러내는 예수 고백자들이 그리스도께 수치를 가져온다는 뜻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7-8절에서 세 번 되풀이되는 단어 δόξα(영예, 영광)를 참조하라).<sup>36</sup> ...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며(12절) 기도로 부르는 대상인(13절) 하나님께로 이끄는 대신 자기 자신에게로 끈다. **로마 사회에서는, 마침 토가를 머리 위로 끌어올리고 있던 사람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신호였다** (플루타르코스(Plutarch), Mor 266).<sup>37</sup>

**“이런 맥락에서 남자는 (머리 덮개 없이) 꾸미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겸손을 보여 주며, 여자는 공적인 자리와 예배에서 자신의 영광/아름다움을 절제함으로써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에게 영예를 돌린다.”<sup>38</sup>** 여자들은 반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가립니다.

남자는 어떤 머리를 욕되게 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의 머리입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가 대표하는 인격으로서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합니다. 그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머리 덮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마땅하지 않은 영예를 스스로에게 돌리기 때문입니다.

5 그러나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자는 누구든지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하나요 같은 것이기 때문이라.

**“남자들은 기도하고 예언할 때 토가를 머리 위로 끌어올리는 로마의 엘리트 전통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여자들은 언제나 머리 덮개를 쓰고서만 기도하고 예언해야 한다. ‘가리지 않은 머리로’라는 표현은 여자들의 특정한 머리 모양이 아니라 천으로 된 머리 덮개, 구체적으로는 머리 위로 끌어올린 스톨라(palla)를 가리킨다.”<sup>39</sup>**

“바울의 논증은 이런 이해를 뒷받침한다. 그는 가리지 않은 머리가 여자에게 수치가 되며, 이는 그녀의 머리를 미는 것과 비슷하여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따라서 그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말한다(고전 11:5-6). 가리지 않은 머리의 이런 의미는 로마법도 공유했다. 로마법에 따르면, 어떤 여자가 마트로나처럼 옷을 입지 않았는데(베일을 쓰거나 머리를 묶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남자가 그녀를 유혹하거나 희롱하려 했다면, 그 남자는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없었다.”<sup>40</sup>

“바울은 교회 모임에서 머리 위로 스톨라를 끌어올리지 않은 채 나타남으로써,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이 ‘누구나 넘볼 수 있는’ 여자라는 비언어적 신호를 보낸 고린도의 여자들을 비판한다. 그러나 교회의 예배 모임은 여자들이 신호를 보내고 남성들에게 ‘품평받는 대상’이 되는 자리가 아니다. 여자의 기도와 예언이 문제이지 공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바울의 관점에서 이렇게 답할 수 있다. 그는 교회 모임을 바로 외부인이 초대되고 또 실제로 함께 있는 공적인 공간으로 이해한다.”<sup>41</sup>

이미 언급했듯이, 웨스트폴은 슈나벨과 달리 여자들의 머리 덮개를 없애려 한 사람들이 남성들이었다고 봅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던 말입니다. 복음의 자유였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은밀한 성적 동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벗으라고 요구한 남성들에게, 그들의 요구가 결국 한 여자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머리를 민 여자는 간음한 여자나 매춘부로서 모든 수치를 뒤집어썼습니다. “바울은 예배에서 여자들이 공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드러나 처벌받은 간음한 여자의 사회적 낙인과 동일시한다. 그 여자의 지위는 매춘부의 ‘위신’과 같았다.”<sup>42</sup>

6 만일 여자가 가리지 아니하거든 머리카락도 자를 것이요, 만일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머리를 가리지 말라는 이 요구가 여자들에게 가져올 결과를 끝까지 따져 보아야 하므로, 바울은 남성들을 따라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들이 사회적 맥락에서 겪게 될 파국적인 결과를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이 풍자적인 요구가 하나의 논증으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해될 것이라고 전제할 수 있다.”<sup>43</sup>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거나 머리를 민 여자의 모습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 모습은 간음이 드러난 여자가 당하는 모욕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공적인 자리에서 간음한 여자로 드러나고, 깎인 머리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여자로 알려지는 것은 수치다. 바울의 견해에 따르면, 여자들이 머리 덮개 없이 교회에 나타날 때 바로 이 수치가 확인된다. 한 여자가 공개적인 모욕을 피하고 싶다면, **그녀는 머리를 가려야 한다.**”<sup>44</sup>

머리 덮개를 포기하라는 요구가 가져올 이런 결과는 문화적 맥락에서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머리 덮개를 지지하기 위해 바로 다음 절부터 창조 사건에서 나온 신학적 근거들도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미리 이 점을 짚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거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문화적 현상과 관련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먼저 성별 문제에 대한 신학을 세우고, 그로부터 머리 덮개의 필요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머리 덮개는 오늘날까지 여자들이 예배에서 지켜야 할 규범일 것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서구 세계에서 머리 덮개는 더 이상 주제가 아니며, 사회적 관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자기들의 작고 분리된 세계에서 법이 되는 관습으로 만든다면 민망한 일입니다.

7 남자는 마땅히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제 바울은 창조 기사에서 얻은 통찰과 추론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이 아니라 당시의, 문화적인 여자와 남자의 행동에 근거를 제공합니다.** 여전히 예배 모임이 주제입니다.

바울이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형상도 아니며, 그의 영광입니다(메데마(Medema)). 바울의 논증은 여기서 특별합니다. 문화적인, 곧 시대에 매인 관습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평행 구조에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여자는 동시에 남자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여자는 ‘흠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녔지만, 실제로는 창조에서 더 높은 질서로부터 지음 받았다.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로 지음 받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의 영광, 곧 영광의 영광이다.** 그러나 이 ‘더함’은 바울 서신에서도 창조 기사에서도 위계적인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위계(땅과 그 밖의 피조물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는 창세기 1:27-28에서 언급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다른 주제들이 다루어진다.”<sup>45</sup>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안에 있지만, 여자는 (그와 대조적으로) 남자의 영광이라고 바울이 확인하는 고린도전서 11:7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답은 이렇다. 하와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과 마찬가지로 여러 겹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뿐 아니라, 아담에게서 직접 지음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영광이기도 했다. 그녀는 독특하게 아담의 형상을 지녔고 심지어 그의 일부였으므로, 그들은 나눌 수 없는 방식으로 한 몸이었다. 그것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는 다른 것이었다(창 2:23-24).**”<sup>46</sup>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논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덮개 문제의 맥락에서 여자가 남자의 ‘반영(광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면 이 진술은 이해가 된다. 여자가 남자의 δόξα(영광)라는 진술은 **‘여자가 지닌 하나님의 형상의 질을 낮추는 것도, 따라서 그녀의 존엄을 깎아내리는 것도 아니다. 바울은 창세기 2장에 근거하여 논증하는데, 그에 따르면 여자는 바로 남자의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며, 따라서 다른 모든 생물과 달리 그와 동등하기 때문이다.’**”<sup>47</sup>

위에서 말했듯이 여자는 아담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고전 15:49), 그리스도 안에서 나머지 인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남자의 겉모습이 여자의 겉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보여 준다고 말합니다. 여자의 겉모습, 곧 아름다움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1:7). **바울은 “남자의 영광”(곧 그의 아내)이 예배하는 동안 가려지거나 감추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배에서 남자든 여자든 사람을 높이거나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습에 관해서는 남자의 영광과 여자의 영광 사이에 차이가 있다. 바울은 문화와 일치하여, 하나님께서 여자를 더 매력적이거나 더 영광스럽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녀가 남자의 영광이라고 믿었다.”<sup>48</sup>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여자는 어떻게 남자의 영광이 되었습니까? 남자는 어떻게 머리, 곧 여자의 기원이 되었습니까? 그녀는 그에게서, 그의 옆구리에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기사를 인용하면 반드시 초월적 규범을 가리킨다는 가정은 문제가 있는 선입견이다. 예수와 바울은 둘 다 인류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성경 기사가 성별에 관한 초월적 규범을 전해 준다고 믿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1:3-16에서 베일 착용을 위한 그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그 기사를 인용했으며, 그것은 문화에 매인 적용이다. 초월적 규범이나 보편적 원리는 규범적이거나 보편적인 결론을 뒷받침하는 데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다.**”<sup>49</sup>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나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9절이 보여 주듯이 사회라는 맥락에서 그들이 서로 어떻게 속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sup>50</sup>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바울은 여자가 창조에서부터 남자에게 속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평가절하를 뜻하지 않으며 해롭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은 δία + 대격이라는 표현에서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본질이나 질이 문제가 되지 않는 문맥 속 논증의 흐름에서, 그리고 11-12절에서 드러난다. **로마-헬레니즘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보다 상당히 어린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은, 바울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에서 전개한 시간적 우선성과 남자와 여자의 기능적 상호 귀속이라는 논증을 고린도의 여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sup>51</sup>

그러나 세 가지 점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11:9)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주장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는 진술을 확인해 줍니다. 둘째, 이 주장은 창세기 2:4-25의 창조 기사에 의해 해석됩니다. 셋째, 이 주장은 “여자는 자기 머리에 대한 권세를 가져야 한다”(10절)는 결론의 근거를 제공합니다.<sup>52</sup>

9절은 남자에게 우선권이 있고 여자는 “단지” 보충 역할을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웨스트폴(Westfall)이 강조하듯이, 하와의 창조는 아담이 도움을 필요로 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는 “강한” 위치, 스스로 책임지는 위치가 주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확인으로 표현됩니다!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머리 위에 권세를 가져야 하느니라.

수많은 번역이 여기서 헬라어 본문에 “권세나 권위의 표”를 덧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권세, 권한 또는 권위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런 덧붙임은 저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이 바울 본문은 여자 위에 있는 남자의 위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그것이 번역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덧붙임은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 절은 다음과 같이 옮겨도 똑같이 좋습니다. 아니, 더 낮게 말하면 이렇게 옮겨야 합니다.

##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자기 머리에 대한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슈나벨(Schnabel), 웨스트폴, 부시넬(Bushnell), 키너(Keener), 쉬르마허(Schirmacher) 등이 이렇게 봅니다)

“추상 명사로서, ‘자기 머리에 대한 권세(곧 통제력)’라는 의미, 곧 자기 자신에 대한 권세라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말한 이 의미는 a) ἐξουσία(권한)라는 단어가 ‘권세’(곧 자기가 가진 권세이지, 수동적으로 겪는 다른 사람의 권세가 아니다)라는 의미의 추상 명사로 쓰이는 일반적 용법, b) 이 표현의 구문 구조, 그리고 c) 논증의 흐름에 부합한다.”<sup>53</sup>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베일을 쓰는 것이 여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그 상징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굴종이나 위계적 복종의 표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여성의 옷차림 문제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6:2-3에서 말했듯이, 그녀는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전통적인 머리 덮개를 씌으로써, 남편에 대한 정절과 자신의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를 받아들이며 자기 머리에 대한 통제력을 보여 준다. 여자들이 교회 모임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드러냄으로써 보내는 성적인 신호는 피하게 되고, 남자와 여자의 상호 귀속은 유지되며, 기도와 예언으로 여자가 하나님의 실재를 말로 표현하는 일은 진정성을 지니게 된다.”**<sup>54</sup>

“따라서 바울의 기원 신학에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서로 의존한다. 고린도전서 11:3-16의 맥락에서 바울은, 베일을 쓰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바람을 지지한 데서 생겨날 수 있는 여자들의 부적절한 독립성을 외교적으로 누그러뜨린다.”<sup>55</sup>

어떤 천사들을 말하는지에 대해 슈나벨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천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 가능성이 제시된다. 1. 요한계시록 2:1에서처럼 교회 지도자들. 2. 고린도 교회 여자들의 행동에 걸려 넘어지는 다른 교회에서 온 사자들. 3.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 고백자들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받으려고 피후견인(또는 종)을 교회 모임에 보낸 믿지 않는 시민들의 사자들. 4. 부활절 아침에 여자들에게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린 천사들. 5. 이사야 6:2에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는 천사들. 6. 창세기 6:1-4의 타락한 천사들.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여자들이 그들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다. 7. 신자들이 판단하게 될 천사들(6:3 참조). 8. 예배에 함께하며 하나님을 대표하고 기도와 예언을 중개하는 선한 천사들. 세 번째 해석과 마지막 두 해석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sup>56</sup>

저는 웨스트폴과 마찬가지로 7번에 동의합니다. 천사들에 대한 심판은 여자들을 포함한 신자들의 엄청나게 높은 지위를 암시하며, 그 지위에는 성숙함과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11 그럼에도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서는.

머리 덮개 문제에서 여자들이 아무리 독자적이고 스스로 책임진다 해도, 그들은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든 결혼 생활과 교회 안에서 남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호 의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조 사건에 부합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여자가 여종 같은 존재이며 열등하고, 다스리거나 이끌어야 할 대상이라고 – 결혼 생활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 결론 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오해를 미리 막고, 타협 없이 남녀 평등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는 새 창조의 존재 방식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이런 동등한 존엄과 평등이 없던 그 시대의 문화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여자는 열등하지 않다. 오히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pi\lambda\eta\nu$ 이 언제나 반의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바울에게서는 ‘다만, 어쨌든’이라는 의미, 곧 ‘논의를 마무리하고 핵심을 부각시키는’ 의미로 쓰인다. 바울은 이렇게 쓴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아무것도) 아니고, 여자 없이 남자도 (아무것도) 아니다.** 번역에서 문장 앞에 놓인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헬라어 본문에서는 문장 끝, 곧 강조되는 자리에 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여자는 남자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문장은 헬레니즘-로마 사회에서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었다. ‘새 여성’의 태도는 예외였을지 모르지만 말이다(5절에 대한 설명 참조). 놀라운 것은 ‘남자는 여자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문장이다. 평행을 이루어 표현된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로 남자와 여자가 같은 서열에 있음을 강조한다.**”<sup>57</sup>

12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11절의 논증을 더 깊이 펼치며, 생각의 흐름은 8절과 똑같습니다. 여자, 곧 하와는 아담에게서 지음 받았습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하와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일, 참된 의미의 키크오프입니다. 그 뒤로 모든 남자는 언제나 거둬들여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신의 우위나 우선권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이시며 머리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바울은 영적인 분별력을 일깨웁니다. 그는 고린도의 남자들에게 말을 걸며 그들에게 간절히 묻습니다. 그들이 여자들이나 몇몇 여자들에게 머리를 가리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그들은 머리 덮개와 결부되어 있던 본질적인 요소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카락을 가리기를 바란다고 논증한다. 여종들처럼 문화 속에서 베일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여자들도 포함해서다.”<sup>58</sup>

“13절에서 바울은 적절함을 근거로 논증하는데, 이것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증이었을 것이다. **여자가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헬레니즘에서 τὸ πρέπον이라는 표현이 τὸ δίκαιον, τὸ καλόν, τὸ ἀγαθόν처럼 ‘사회생활이 많은 덕목을 요구하기 때문에 삶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복장 규정의 문제도 포함한다.”<sup>59</sup>

“πρέπον ἐστίν(적절하다, 마땅하다)이라는 표현은 동시대 문헌에서 기존의 규범에 맞게 행동하리라는 기대를 가리킨다. 이것은 로마 문화의 근본 범주였으며, 특히 행동에서 복장 규정에 이르기까지 규제했던 아우구스투스의 혼인 입법의 결과이기도 했다. 고린도 사람들은 사회의 규범과 기대를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이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리라고 기대한다.”<sup>60</sup> “여기서 문제는 올바른 기도 방식을 규정하는 관습이 아니라, 사회에서 통용되고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으며 ‘주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에 의해 폐지되지 않은 적절함의 규범이다.”<sup>61</sup>

“베일 착용의 명령은 여자에 대한 논박으로도, 남자에 대한 여자의 복종으로도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베일 착용은 그녀의 보호였으며,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지위와 명예의 표시였기 때문이다.”<sup>62</sup>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바울이 기대하는 대답은 신학적 근거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 맞추는 것입니다.

14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불명예(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먼저 바울은 다시 남자에 대해 말한다.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라는 것을 본성 자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바울은 다시 이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는 답이 나오리라고 기대한다. ‘본성’(φύσις)이라는 표현은 공인된 자연의 질서를 가리키며,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의 생김새와 겉모습이 속한다. 물론 바울은 ‘본성’이 남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라게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수치’(ἀτιμία)라는 지적은 13절의 πρέπον처럼, 사물의 자연적 질서 속에서 규범으로 인정된 관행을 가리킨다. 본성에 호소할 때 사람들은 이견 없는 동의를 기대했다. 국가와 행정의

최고위 대표자들조차 어떤 사안의 본성을 들어 논증했으며, '이것이 그런 논증에 최고의 권위를 부여했다.'<sup>63</sup>

"고린도에 살던 성인 남자들은 긴 머리가 아니라 짧은 머리를 했다. 긴 머리는 남성성을 부정한다는 신호였고, 로마 사회에서 사회적 낙인이 찍혀 있던 수동적 동성애 성향을 의심받게 하는 일이 많았다. 바울은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남자 지체들은 관례대로 짧은 머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sup>64</sup>

**본성이 가르친다고요? 본성이 예수의 제자에게 선생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선생은 성령이시지, 죄로 손상되고 망가진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슈나벨이 쓰듯이, 이것은 사회의 확고한 질서, 곧 사람들이 오랜 세월 그렇게 해 와서 문화가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서 적절한 비교 대상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머리 모양과 옷차림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포스트모던 시대는 절대적 개인주의로 특징지어집니다.

**이 논증에서 본성은, 고대라는 시대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살았던 주관적인 질서입니다. 불명예 – 더 날카롭게 옮기면 수치 – 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고린도의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것입니다. 나실인이나 압살롬이나 삼손, 바울, 그리고 어쩌면 예수의 긴 머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는 걸림과 짝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한 걸림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형성되어 자리 잡은 생리학적 이해도 짧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이 이해에 따르면 남자의 씨(정자)는 머리에서 만들어져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긴 머리는 씨의 흐름을 막거나 늦추어 생식에 해가 된다고 여겨졌습니다.

15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그것이 그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베일 대신 주셨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다면 "본성"은 여자와 그들의 머리 모양이나 머리카락의 성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자들에게는 관습이 다르다.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여자들은 머리를 길게 길렀다. 조각상들은 여자들을 언제나 긴 머리로 보여 준다. 특히 형편이 나은 여자들 사이에서는 길게 기른 머리를 정교하게 손질했다."<sup>65</sup>

고대에 여자의 머리카락은 대개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키너). 그것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 당시의 해석에 따르면 – 욕망을 불러일으키려 한 것입니다. 상류층 여자들은 때로 이를 무시하고, 공들여 땀은 머리와 그 안에 꽃은 장신구를 과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여러 문화가 서로 부딪혔습니다.

**"바울이 영광을 여자와 그들의 머리카락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아, 그는 여자들이 시각적으로 영광의 영광이라고, 곧 여자들이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는 사실(고전 11:9)은 그녀의 더 큰 아름다움과 남자들에게 주는 매력의 목적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하와를 동반자, 반려자로 필요로 했던 쪽이 아담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녀의 창조로 덕을 본 쪽은 그랬지, 그 반대가 아니었다."**<sup>66</sup>

“오히려 바울의 논증은, 영예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예배에서 여자의 ‘머리’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라는 은유는 이 논증에 본질적이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며(문자적으로), 여자의 머리는 무엇보다 그녀 남편의 영광이고, 그녀 머리 위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영광이며 또한 그녀 남편의 영광이다.”<sup>67</sup>

“여자의 아름다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그녀 남편의 지위를 보여 주며, 그것은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예와 직접 경쟁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이지, 가정 교회 남성들의 영예와 영광도 아니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자들의 영광과 아름다움도 아니다.**”<sup>68</sup>

“이것이 바울 논증의 출발점이며, 그는 여자와 paterfamilias(가장)의 관계에 대한 문화적 이상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논증이 전개되면서 실제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평등하게 하고, 각자의 가치를 확정하며, 그들의 기원이 서로에게서 비롯됨을 부각시켰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지만,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의 초점과 관심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위나 통제를 확인하거나 강화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데 있다.**”<sup>69</sup>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고, 그녀의 머리카락은 그녀의 영광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예배할 때 그것을 가려야 한다. 바울은 머리카락이 여자의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녀의 외투/덮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고전 11:15). **이것은 여자의 머리카락이 그녀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미용 장신구(술/베일 같은 것)처럼 기능한다는 뜻이다.** 베일을 쓰는 문화들은, 정숙한 여자의 머리카락은 남편이 바라보고 즐기도록 남겨 두어야 하며, 따라서 공적인 자리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16 만일 누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것을 옳게 여길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고린도에는 온갖 일로 다툼이 넘쳐 났습니다. 머리 덮개 문제로까지 또 다른 다툼이 불붙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남자가 머리를 가리거나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관습은 있어서는 안 되며, 분명히 다른 어디에서도 알려져 있거나 행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고린도의 회의론자들에 대한 마지막 논증입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바울이 묘사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남자들은 머리 덮개 없이, 여자들은 머리 덮개를 쓰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16절 하반절(**‘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다’**)에서, 그런 관습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도적 전통이 없다는 지적으로 마무리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교회들(αἱ ἐκκλησίαι τοῦ θεοῦ) 가운데 어디에서도 이런 행동의 전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크리스티안 볼프(Chr. Wolff)는 이렇게 논평한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들의 새로운 관습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다른 구원 공동체들과의 교제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다.’”<sup>70</sup>

## 오늘날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한 마디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대에 속하고 그 시대를 향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가림으로써, 자신에게 주의를 끌거나 머리카락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남자들(어쩌면 몇몇 여자들도)의 주의를 흠뜨리는 일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찬양받고 기려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에서 어떤 것도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며, 누구도 주의나 영예를 자신에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겉모습으로, 타고난 아름다움이나 꾸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예를 조금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윤리적 원칙이며, 오늘날까지 유효합니다. 어떤 연사도, 설교자도, 삶의 간증이나 선교 보고를 하는 사람도, 어떤 찬양하는 사람도, 악기 연주자도, 어떤 사람도 –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 옷차림으로 자신에게 주의를 끌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덮개의 관행에 관해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머리 덮개로 정숙한 아내로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오래전부터 더 이상 관례가 아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따라서 이슬람 지역의 교회들에서는 이것이 다릅니다! – HJR].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교회에서 머리 덮개 없이 활동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이 사는 도시의 공적인 자리에서도 머리 덮개 없이 다니기 때문이다. **머리 덮개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아내들은 ‘성경에 대한 순종’으로 오늘날에도 머리 덮개를 써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지시를 바로 ‘순종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에게 문제는 머리 덮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하고 근본적인 전통적 관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서유럽의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 덮개를 쓴다면, 그것은 바울이 요구한, 아내의 순결과 연대를 상징하는 관습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오히려 순응하지 않는 행동이다. 서구에서는 혼인의 연대와 정숙함이 특정한 옷차림으로 상징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말로, 곧 혼인과 배우자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표현된다.”<sup>71</sup> 그리고 물론 결혼반지로 표현됩니다. 결혼반지는 그것을 낀 사람이 확고한 (혼인) 관계 속에 살고 있으며,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지도 않고 성적인 모험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보여 줍니다. 결혼반지가 그런 일을 막아 주는 것은 제한적일 뿐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시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쓰라고 정하는 사람은 – 혹은 여자로서 스스로 그렇게 정하는 사람은 – 우리가 부름받은 복음의 자유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1:3-16을 **설명을 곁들여 자유롭게 옮긴 것(의역)**을 씁니다. 제가 이 단락을 짧게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여,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기원, 곧 머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남자가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인 여러분은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것은 모임에서 드러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하나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지음 받았습니다. 그는 머리이고, 그녀는 몸입니다. 남자는 그녀의 기원이며, 그녀도 그에게 속해 있고, 그것이 모임에서 드러납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봅니다. 그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곧 자신과 동등한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남자가 모임 가운데 소리 내어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머리를 가리고 있다면, 그것은 수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예를 돌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은 남자는 겸손을 보여 주며, 지극히 높으신 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영예를 돌립니다.

여자들은 정반대입니다. 모임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들은 자기 머리에 수치를 가져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 곧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합니다. 그들이 주의를 자신에게 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요구한다면, 그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자는 머리를 깎은 여자로 여겨지며, 몸을 파는 여자나 성적인 만남을 찾는 여자와 같이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베일을 쓰거나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머리카락도 자르거나 아예 머리를 밀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런 결과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통상적인 관습이 거부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의 영광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 밖에도 남자의 영광의 반영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와 하나인 그녀 남편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그의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가 그녀에게서 지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서, 그의 옆구리에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자의 영광인 것은 그가 그녀를 위해 지음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그가 혼자였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자로서 그에게 탐스러울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여자는 그토록 큰 가치를 지니고 남자에게 그토록 큰 유익이 되므로, 그녀 스스로 자기 머리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머리를 가릴지 말지 말입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것을 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녀에게 머리 덮개를 쓰지 말라고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신의 독자성과 결정의 자유 가운데서도, 자신이 남자와 분리되어 있거나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녀는 남자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자도 여자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와 몸의 일치 속에서 그들은 함께, 한마음으로, 서로 의논하며, 평화롭게, 피차 복종하며, 서로 보완하며 행동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처음 사람 부부의 창조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에게 속하여 다시 그와 한 몸이 되도록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가 없을 것입니다. 둘은 같은 존엄과 같은 가치와 같은 지위를 지녔으며, 그 다름 속에서 완전한 보완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이 나온 머리이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나 베일도 쓰지 않고 머리도 가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동의할 것입니다. 고린도와 로마 제국의 관습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칙과 같은 풍습과 관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남자가 풍습과 관습과 달리 긴 머리를 하면 그것은 수치로 여겨집니다. 여기서도 여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여자들의 긴 머리는 그들의 영광이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타고난 장식입니다. 긴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 되도록, 꾸며 주는 베일이나 겹옷처럼 그녀에게 주어졌습니다.

남자들에게 그토록 탐스러워 보이는 이 장식을 그녀는 모임에서 가려야 합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음으로써 겸손을 보여 주어야 하듯이, 모임은 이 영광을 드러내며 나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예와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을 알현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고린도에서 누군가 이것을 두고 논쟁하려 하고 머리를 가리는 이 관습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는 그런 일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자들에게 정해 주려 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행하는 것처럼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일 말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머리 덮개에 관해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품위 있으며, 누구에게도 걸림이 되지 않는 것을 지키십시오.**

## **맺음말과 요약**

“이 단락의 언어와 바울의 결론은, 누군가 고린도의 가정 교회들에서 베일 착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했지만, 모든 여자들이나 몇몇 여자들이나 한 여자가 베일을 쓰고 싶어 했음을 시사한다. 먼저 바울은 창조 기사를 짧게 요약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그리고 남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이유라고 설명한다. 남자는 그녀의 머리다. 그녀가 그에게서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의 머리는 그의 영광을 반영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한다. 창세기의 기사에서 그녀는 또한 그의 영광이었다. 모든 짐승과 달리, 그녀는 특별히 그를 끌어당기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이다(창세기 2:18-23).”<sup>72</sup>

“바울의 본문들에는 성별(젠더)에 관한 신학이 담겨 있다. **그 신학은 바울이 그리스·로마 문화의 개념과 상징, 그리고 헬라어의 관용 표현으로 창조 기사를 설명하는 방식 속에서 구현된다.** 바울은 ‘머리’라는 은유를 아담에게 적용함으로써, 아담 이후의 나머지 인류와 마찬가지로 하와가 여러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아담의 형상이며, 또한 ‘남자의 영광’이다. **여자를 ‘남자의 영광’이라고 한 바울의 묘사는 복종이나 더 작은 영광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영광, 곧 남자들에 대한 그녀의 아름다움의 힘을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고 말하는 디모데전서 2:13-14의 바울의 짧은 서술(13절)에 남자의 우위를 투사해 넣을 수 없다. 오히려 바울은 창조 기사에서 상호성을 가르친다. 바울은 남자를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유익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것을 그 문화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묘사한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빚어졌으므로, 창조 기사에서 남자는 헬라어 용법에서 말하는 여자의 머리(그녀의 생명의 기원)로 기능한다.** 그러나 그 뒤로는 모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오므로, 여자도 생명의 기원이다. 창세기 3:20의 ‘하와’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여자와 남자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 바울이 창세기 1:27-28의 창조 기사에 나타난 여자의 권위나, 그가 사용한 헬라어 관용어 ‘머리’에서 여자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재해석하거나 상대화한다고 해석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둘 다 다스리도록 지음 받았다. 바울에 따르면 그 다스림은 해당 문화의 틀 안에서 공동성과 상호성의 의미로 행사된다.”<sup>73</sup>

**복음이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림 없이 살아 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 **부록**

다음 두 가지 본문 배열은 교차 대구법(키아스무스, 단어나 생각을 X자 모양으로 엮갈리게 배열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배열은 슈나벨(Schnabel)의 것입니다. 이 배열은 본문이

남자들에게나 여자들에게나 똑같은 정도로 말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누가 말을 듣는 빈도를 보고 고린도에서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 읽어 내려 한다면, 그것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4절 모든 남자는 ...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

5절 모든 여자는 ...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한다

7절 상반절 남자는 하나님의 반영이다

7절 하반절 여자는 남자의 반영이다

11절 상반절 주 안에서 여자는 남자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11절 하반절 주 안에서 남자는 여자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12절 상반절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12절 하반절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14절 남자에게는 수치다

15절 여자에게는 영광이다<sup>74</sup>

여기서는 데이비드 E. 갈랜드(David E. Garland)가 나눈 대로, 이 본문, 곧 하나로 이어진 이 생각의 흐름 또는 의미 단락의 완벽한 교차 대구 구조를 보여 줍니다. 같은 글자 A B C D가 한 번은 중심 진술 앞에서, 한 번은 그 뒤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중심 진술은 **10절이며, 갈랜드는 이것을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에 관한 핵심 진술로 부각합니다. 제게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머리 덮개를 쓸지 말지는 여자가 결정합니다. 남자들이나 남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유롭습니다.**

A Introduction: the “Head” of Men and Women (vv.2-3)

Commendation (v.2); Summary of Headship (v.3)

B Shame for Men and Women (vv.4-5)

For Men (v.4); For Women (v.5)

C Social and Theological Reasons for Shame (vv.6-7)

Social Reasons (v.6); Theological Reasons (v.7)

D Creation of Men and Women (vv.8-9)

Men (vv.8a; 9a); Women (vv.8b; 9b)

**E Reason for Women to be Covered (v.10)**

D' Equality of Women and Men (vv.11-12)

Women (vv.11a; 12a); Men (vv.11b; 12b);

Equality in God (v.12c)

C' Social Implications for Women (v.13)

B' Shame and Glory in Men and Women (vv.14-15)

Shame for Men (v.14); Glory for Women (v.15)

A' Conclusion: Exhortation to Adhere to Teachings (v.16)

---

## 주

1. Hans-Jörg Ronsdorf, hj-ronsdorf@t-online.de,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4일, 2026년 10월 개정
2. www.hans-joerg-ronsdorf.de
3. <https://theoblog.de/eckhard-schnabel/16636/>
4. Cynthia Long Westfall, Paul and Gender. Reclaiming the Apostle's Vision for Men and Women in Chris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6.
5. Schottroff, L., *Der erste Brief an die Gemeinde in Korinth*, edd. E. W. Stegemann/L. Schottroff/A. Strotmann/K. Wengst, VII, Theologischer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 2013, 197.
6. Westfall, Paul and Gender, 13쪽(이하 쪽수만 표기).
7. 13쪽
8. 17쪽
9. 20쪽
10. 25쪽
11. 26쪽
12. Eckhard J. Schnabel,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Historisch-Theologische Auslegung, Witten/Gießen: SCM R. Brockhaus/Brunnen, 제4판 2018, 625쪽.
13. 26쪽
14. 27쪽
15. 29쪽
16. 마트로나(Matrona)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 로마 시민과 결혼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녀의 자리는 대개 집 안이었고, 가족과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곧 아버지나 남편의 보호와 후견 아래 있었습니다. (출처: Wikipedia, 「Matrona」 항목)
17. 29쪽
18. 31쪽
19. 32쪽
20. 33쪽
21. 37쪽
22. Schnabel, E. J.,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edd. G. Maier/H.-W. Neudorfer/R. Riesner/E. J. Schnabel, Historisch-Theologische Auslegung Neues Testament, SCM R. Brockhaus; Brunnen Verlag, Witten/Gießen, 제4판 2018, 602–603.
23. 42쪽
24. 44쪽
25. 몇몇 여자들이 스스로 머리 덮개를 벗으려 했다 하더라도 바울의 기본 진술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정은 오히려 개연성이 낮습니다.
26. 따로 밝히지 않는 한, 독일어 성경 번역본 Elberfelder(CSV판)에서 번역했습니다.
27. 이 생각들은 제 책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 6.2장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을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으니, 두 글을 모두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28. 87쪽
29. 38쪽
30. 84쪽
31. 80쪽
32. 82쪽
33. 85쪽
34. 89쪽
35. 90쪽

36. Schnabel, E. J., 601
37. Schnabel, E. J., 602
38. 40쪽
39. Schnabel, E. J., 602
40. 29쪽
41. Schnabel, E. J., 604
42. Schnabel, E. J., 605
43. Schnabel, E. J., 606
44. Schnabel, E. J., 606
45. 72쪽
46. 65쪽
47. Schnabel, E. J.,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edd. G. Maier - H.-W. Neudorfer - R. Riesner - E. J. Schnabel, Historisch-Theologische Auslegung Neues Testament, SCM R. Brockhaus; Brunnen Verlag, Witten; Gießen 2018, 제4판, 608–609.
48. 70쪽
49. 62쪽
50. Schnabel, E. J., 609
51. Schnabel, E. J., 609–610
52. 103쪽
53. Schnabel, E. J., 610
54. Schnabel, E. J., 610–611
55. 73쪽
56. Schnabel, E. J., 611
57. Schnabel, E. J., 613–614
58. 30쪽
59. Schnabel, E. J., 616
60. Schnabel, E. J., 616–617
61. Schnabel, E. J., 617
62. 70쪽
63. Schnabel, E. J., 617–618
64. Schnabel, E. J., 619
65. Schnabel, E. J., 619
66. 40쪽
67. 41쪽
68. 41쪽
69. 42쪽
70. Schnabel, E. J.,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edd. G. Maier - H.-W. Neudorfer - R. Riesner - E. J. Schnabel, Historisch-Theologische Auslegung Neues Testament, SCM R. Brockhaus; Brunnen Verlag, Witten; Gießen 제4판 2018, 622–623.
71. Schnabel, E. J., 624
72. 98쪽
73. 105쪽
74. Schnabel, E. J., 590